

흡연 예방

정부는 2015년도부터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초, 중, 고 11,837개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흡연예방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가 흡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가정마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우리 집'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간접 흡연과 3차 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므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학교(운동장 포함)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이미지 출처:
참보건연구회

흡연 아빠 자녀들 백혈병 위험 15% 높다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면 자녀의 암 발생률 44% 높아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자녀들은 아이들에게 흔한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이 적어도 1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텔레슨 어린이 건강조사연구소 연구팀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을 가진 어린이 약 40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흡연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가족과 백혈병이 없는 같은 나이 아이들 800명의 가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아이들 생각에 아빠가 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여기는 아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 가량 높았으며, 아빠가 하루에 적어도 20개비를 피우는 아이들은 암 진단

가능성이 44% 높게 나타났다. 수치가 15% 높아지는 것은 20만 명당 6명이 걸리는 경우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2011.12.15.자 코메디닷컴뉴스 발췌>

2.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하는 것이다(특히,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집안에서는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피운다.
- 차안에서 어린이가 같이 타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한 다음 어린이 곁에 갈 것
- 아기를 안거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 것.